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181

JCCT 2022-7-23

## 부모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Infants' Social Competenc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Self-Esteem

정영미\*

Jeong Yeong Mi\*

**요약** 본 연구는 부모 양육 스트레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부모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Pearson's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간접효과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아버지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 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부모, 스트레스, 유아, 사회적 유능감, 자아존중감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relation to parenting stress,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parents' self-este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parental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data of the 7th year of 2014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and Pearson's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for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In addition,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the child's social competence, Process Macro Model 4 was appli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was verified by the bootstrapping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correlations between all latent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mother and father self-esteem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father and mother's stress on infants' social compet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parents should be able to increase their self-esteem so that they can have faith and confidence in themselves and control their emotions well in parenting stressful situations.

**Key words** : Parental Attachment, Child, Life Satisfaction, Ego Resilience

\*정희원, 경남도립거창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초빙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5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일

Received: May 30, 2022 / Revised: June 25, 2022

Accepted: July 2, 2022

\*Corresponding Author: mongsil57@hanmail.net

Dept. of Child Care & Welfare, Gyeongnam Geochang Univ,  
Korea

##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적 존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런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배우게 되며, 사회적 맥락과 관습을 이해하게 된다 [1, 2].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사회적 유능성이다.

사회적 유능성은 인간이 환경과 적절히 상호작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적응을 달성하게 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및 능력이다 [3, 4]. 이러한 사회적 유능성은 유아기에 발달하기 시작하며 유아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5]. 유아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유능성의 토대는 사회적 적응능력이나 협력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으로 이후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7].

유능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돕는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에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그중에서도, 부모 관련 환경적 맥락에서 초기 경험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유아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은 특히 중요하며 발달에 중요한 자원이 된다 [9]. 부모의 건강한 정서적 상태는 유아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정적인 상관 [10, 11]을 보이는 반면 우울이나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변인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12, 13]. 이는 부모의 정서적 상태에 의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 관련 변인 중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양육 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역할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의 정도나 부담감을 의미한다 [14]. 선행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사회적 적응과 관련 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5-17]. 그러나 대부분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18, 19].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역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확대되고 있어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도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20].

또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느낌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21, 22].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을 때 내외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조절할 수 있고 유아의 사회적 발달, 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계를 부모 자아존중감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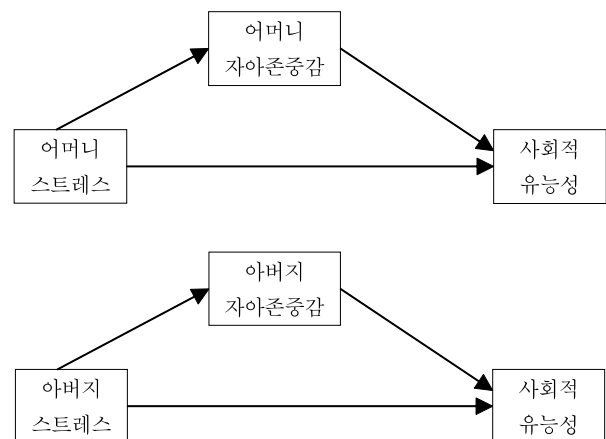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자료를 사용하였다. 7차년도 조사는 만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150 가구 중 현재 유지되고 있는 1,620여명의 표본 중 부모 스트레스, 유아의 사회적 존중감, 부모 자아존중감 모두에 응답한 13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분	내용	빈도(%)
아동성별	남	702(50.9%)
	여	676(49.1%)
아동월령	아동 평균 월령	75.13개월
부모연령	어머니 평균 연령	36.76세
	아버지 평균 연령	39.24세

## 3. 측정도구

### 1) 부모 스트레스

부모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의 신뢰도는 .869, 모의 신뢰도는 .875이다.

### 2) 부모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 총 1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문항은 역코딩으로 처리하였다. 부의 자아존중감 신뢰도는 .872, 모의 자아존중감 신뢰도는 .894이다.

### 3)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은 부모평정용으로 주장성 11문항, 협력성 6문항, 자기통제 7문항, 책임성 8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리커트 척도로 전체 신뢰도는 .894이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측정 도구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부모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간접 효과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주요변인 기술통계

각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 스트레스에서 부의 평균은 2.374( $SD=.593$ ), 모의 평균은 2.568( $SD=.615$ ), 부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818( $SD=.554$ ), 모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742( $SD=.593$ ),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균은 2.309( $SD=.593$ )로 나타났고,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 스트레스	부	2.374	.593	-.010	-.171
	모	2.568	.615	.125	.115
부모 자아존중감	부	3.818	.554	-.381	-.275
	모	3.742	.607	-.154	.110
유아 사회적유능감		2.309	.299	-.078	-.509

###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 $p<.01$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1	2	3	4	5
1. 아버지 스트레스	1				
2. 어머니 스트레스	.374**	1			
3. 아버지 자아존중감	-.523**	-.221**	1		
4. 어머니 자아존중감	-.274**	-.571**	.266**	1	
5. 유아 사회적유능감	-.185**	-.275**	.149**	.149**	1

3. 어머니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서 어머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어머니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서 어머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 $\beta=-.579,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머니 스트레스와 어머니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어머니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 $\beta=-.180, p<.001$ )을, 어머니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 영향( $\beta=.167,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스트랩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95% CI:  $-.132\sim-.06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어머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other's self-esteem

독립 변인	종속 변인	$\beta$	SE	T	95% CI	
					ll	ul
어머니 스트레스	어머니 자아존중감	-.579	.022	-25.793***	-.606	-.520
어머니 스트레스	유아 사회적 유능감	-.180	.015	-5.742***	-.117	-.058
어머니 자아존중감		.167	.015	5.356***	.052	.113
간접효과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096	.018	-.132	-.060	

4. 아버지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서 아버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버지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서 아버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버지 스트레스는 아버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 $\beta=-.523,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버지 스트레스와 아버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 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적 영향( $\beta=-.147, p<.001$ )을, 아버지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 영향( $\beta=.072, p<.05$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스트랩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95% CI:  $-.069\sim-.006$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버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able 5. Mediating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독립 변인	종속 변인	$\beta$	SE	T	95% CI	
					ll	ul
아버지 스트레스	아버지 자아존중감	-.523	.022	-22.754***	-.531	-.446
아버지 스트레스	유아 사회적 유능감	-.147	.016	-4.746***	-.105	-.044
아버지 자아존중감		.072	.017	2.310*	.006	.072
간접효과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038	.016	-.069	-.006	

IV. 논 의

본 연구는 부모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부모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아버지 스트레스와 어머니 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아버지 스트레스와 아버지·어머니 자아존중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어머니 스트레스는 아버지·어머니 자아존중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버지·어머니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15, 23]. 즉,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 양육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어머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24]. 자아

존중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양육 상황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함으로써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독립적 측면으로 분리해서 살펴봄으로써 유아기에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함을 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저해하는 부모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낮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부모의 정서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분석함에 따라 유아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의 한계점이 있어 추후에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좀 더 심층적인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역할에서 양육 스트레스가 다르게 인식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References

- [1] M. O. Lee and H. J. Jun,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arenting,"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Vol. 3, No. 3, pp. 97-116, 2018. DOI : 10.20926/ETPIYC.2018.3.3.5
- [2] Katz, L. G., and McClellan, D. E.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ED 413073.
- [3] H. J. Lim, "A study on effects of mothers' parental competence, mothers' parental anxiety, child's self-esteem, and child's happiness on child'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4, No. 5, pp. 133-156, 2019. DOI : 10.20437/KOAECE24-5-07
- [4] Y. J. Choi and M. S. Cha. "The Mediating Effect of You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6, No. 1, pp. 121-145, 2022. <https://doi.org/10.22590/ecee.2022.26.1.121>
- [5] S. K. Woo, "How mother's playfulness, young children's sex, and playfulness affect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8, No. 4, pp. 263-283, 2013.
- [6] S. Y. Shim and S. A. Lim, "The influence of preschool teachers' happiness and self-efficac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Vol. 38, No. 1, pp. 319-339, 2018. <http://dx.doi.org/10.18023/kjece.2018.38.1.013>
- [7] Parker, J. G., and Asher, S. R.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2, No. 3, pp. 357, 1987.
- [8] Y. J. Hong, "Association between Mothers' Perceived Impact of COVID-19 on Daily Live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Social Connectedness and Parenting Stress,"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43, No. 1, pp. 19-32, 2022. DOI : 10.5723/kjcs.2022.43.1.19
- [9] Reiss, H. G. T., Collins, W. A., and Berscheid, E. "The relationship context of human behavior an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6, No. 6, pp. 844-872 2000.
- [10] B. W. Cho, "A Study on Relation of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4, No. 1, pp. 91-115, 2017. DOI : 10.22155/JFECE.24.1.91.115
- [11] E. O. Jun and N. Y. Choi, "Mother's Happiness, Parenting Efficacy, and Preschooler's Happiness:

-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and Education*, No. 82, pp. 103-126, 2013.
- [12]O. J. Choi, “A longitudinal study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of mother, and early childhood socialit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6, No. 3, pp. 127-149, 2016. DOI : 10.18023/kjece.2016.36.3.006
- [13]H. K. Chae and H. S. J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Related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ocusing on Mother’s Happiness, Parenting behavior and Family Inter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 27, No. 4, pp. 199-217, 2017.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4.201712.199>
- [14]Deater-Deckard, K.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Vol. 5, No. 3, pp. 314.
- [15]N. H. Kim and I. K. Baek, “The Effect of Child-Rear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ir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and Social and Peer Competenc,”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 19, No. 1, pp. 365-384, 2015.
- [16]Y. J. Joung and E. Y. Kim, “A Study on the Mediated Effects of the Parenting 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Sense of Happiness & Parenting Stress and Their Infants’ Social Ability,”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Vol. 8, No. 1, pp. 111-132, 2021.
- [17]H. E. Jang and C. G.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y Ability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e Korean Society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 33, No. 2, pp. 65-81, 2017. DOI : 10.33770/JEBD.33.2.4
- [18]Campbell, S. B., Shaw, D. S., and Gilliom, M.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12, No. 3, pp. 467-488, 2000.
- [19]S. M. Kim and J. A. Choi, “The relations among mother’s playfulness, child’s playfulness, child’s self regulation and child’s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9, No. 2, pp. 39-54, 2015.
- [20]J. A. Seo and J. A. Ohm,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aternal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Child Rearing Involvement of Korean Father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the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Social Develop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0, No. 2, pp. 419-447, 2016.
- [21]Y. M. Jeong, “Respect your child’s decisions Effect of parental attitude on human rights awarenes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Vol. 8, No. 2, pp. 77-82, 2022.
- [22]D.H. Ryu and S.H. Lee.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stress-coping strategies, and the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in immigrant and non-immigrant familie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2, pp. 107-131, 2016.
- [23]A. R. Lee, “The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 of Mother Parenting and Self-esteem on Early Childhood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 8, No. 3, pp. 117-134. 2021.
- [24]Cohen, S., and Wills, T. A.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98, No. 2, pp. 310, 1985.